



신안 자은도 뮤지엄파크에 위치한 수석미술관 정원 모습.

# 1004 섬 신안, 1004 뮤지엄을 꿈꾸다

바쁜 삶에서 잠시 벗어나 나를 차분히 돌아볼 수 있는 순례길, 신비로운 보라색이 인상적인 퍼플교, 바닷 소리가 들릴것같은 다채로운 조개를 만날 수 있는 조개박물관, 세계적인 화가 김환기의 생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신안군은 힐링과 휴식, 예술이 어우러진 천혜의 지역이었다.

지난 15일 광주에서 약 1시간 30분을 달려 신안 압해도 신장 선착장에 도착했다. 기점·소악도를 비롯해 신안을 대표하는 병풍도, 자은도, 안좌도 등을 방문하기 위해서다.

신안군은 자연 자원을 활용해 섬 하나하나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하는 '1도(島) 1뮤지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천사상미술관, 1004섬 수석박물관, 이세돌박물관 등 자연을 모티브로 박물관·박물관 12곳이 완성된 상태다.

선착장에 도착해 약 30분간 조그마한 행정선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달리는 배위,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를 보다보면 기점·소악도에 도착한다. 기점·소악도는 병풍도를 모섬으로 하는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 등 작은 섬 네 개로 이뤄진 섬이다.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 있다면 신안에는 12사도 순례자의 길이 있다. 이곳은 섬을 잇는 순례길이라고 해서 '섬

'1도(島) 1뮤지엄 프로젝트' 진행

천사상미술관·수석박물관 등 12곳 완성

기점·소악도, 12개 예배당 '12사도 순례길'

자은도, 수석미술관...반월·박지도, '퍼플교'

안좌도엔 세계적 화가 김환기 고택

티아고, 예배당 열두 개가 예수의 12사도를 상징한다고 해서 '12사도 순례길'이라고도 불린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순례길을 찾는 방문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적한 자연을 보며 걷기에 안성맞춤. 노들길로 이어진 섬과 섬은 여유로움 그 자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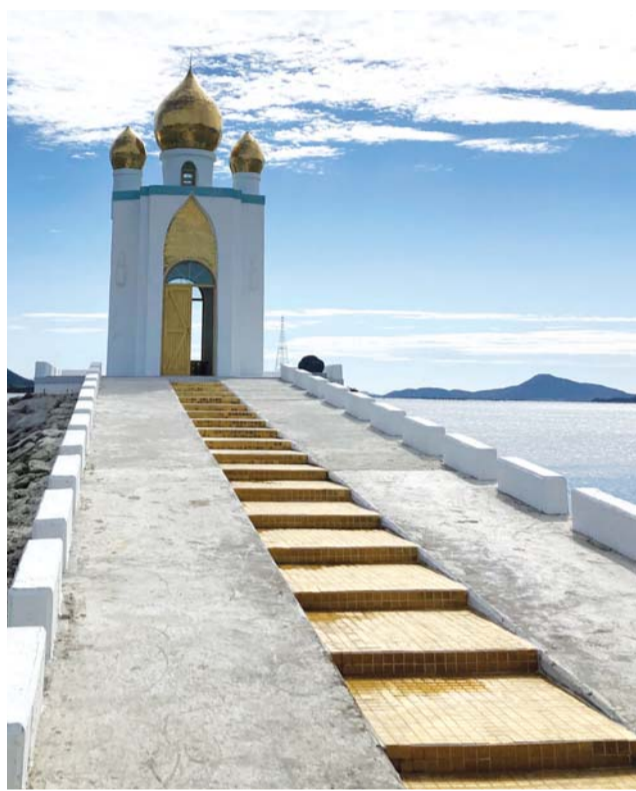
이어 자은도로 향했다. 천사대교 건너 양산해변을 끼고 만들어진 '1004 뮤지엄 파크'에는 수석미술관·수석정원을 비롯해 세계조개박물관, 신안새우관 전시관, 바다 해양숲 공원이 조성돼 있다.

뮤지엄파크는 말 그대로 박물관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공원으로 축구장 70배 면적을 자랑한다. 현재는 1004섬 수석미술관과 세계조개박물관이 문을 열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해상 숲 오토캠핑장, 유리공예 미술관과 현대미술관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무한의 다리'도 만날 수 있다. 섬과 섬을 다리로 연결해 걸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이곳을 걷다보면 탁 트인 해변만큼 가슴도 확 트인다. '무한의 다리' 바로 옆 자은면 한운리 일원에는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박은선 작가와 건축 거장 마리오보타가 협업해 인피니토 뮤지엄을 건립할 계획이다.

신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환기다. 신안이 낳은 세계적 화가 김환기 고택은 안좌도에 있다. 신안군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이곳 마을 주민들은 고향을 설명할 때 김환기를 절대 빼놓지 않았다. 그에 대한 큰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신안군은 그의 생가 인근 저수지에 군도형(플로팅) 미술관을 추진 중이다. 김환기의 예술과 문화, 사색 등은 물론이고 인근 환경과 결합해 다양한 사색,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점·소악도에 있는 12개 예배당 중 하나인 '기쁨의 집'.

최근 홍콩의 여행잡지(U magazine)에 소개되기도 한 반월·박지도는 도라지 군락지와 라벤다 정원을 중심으로 보라색 퍼플교, 보라색 지붕으로 입소문을 타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은 라벤다가 다 저버려서 꽃을 볼 수는 없었지만 두리~박지도~반월도를 잇는 '퍼플교'를 걷는 것 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퍼플교'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광활한 갯벌에는 낙지, 꽃게들이 숨어들었는지 작은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었는데, 1.5km길이를 자랑하는 이 다리는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육지에 가보고 싶다면 할머니들의 소망을 담아 만들어졌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현대미술의 성지로 불리는 일본 나오히라, 미술관 하나로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붙잡는 일본 가나자와처럼 신안도 천혜의 환경을 바탕으로 가고싶은 섬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신안은 '1도1뮤지엄'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클 사진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조개박물관 내부 모습.

## 'With people' 파안대소

서현호 초대전, 11월1일까지 아산조방원미술관

서현호 작가가 화폭에 그려온 건 각각각색의 인물들이다. 다양한 사연을 담고 있을듯한 사람들의 얼굴은 표정 하나에서, 움직임 하나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래 전 대인예술시장에서 선보였던 'People Drawing' 전이나 지난해 5월 곡성세계장미축제장에서 설치미술로 선보였던 '5월에 만인의 얼굴이 꽃이다'가 대표적이다.

곡성에 위치한 도립 아산조방원미술관이 서현호 작가 초대전 'With people'을 오는 11월 1일까지 진행한다.

곡성 출신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곡성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해온 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의 모습을 담은 인물화를 선보이고 있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모두 웃고 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19 상황으로 힘든 요즘, 파안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관객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그의 인물들은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과장돼 있다. 거친 붓터치와 강렬한 색채로 묘사된 인물들은 온 마음을 다해 웃음을 터트리는 듯 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다양한 인물상을 전시장 바닥에 배치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작가는 "웃음은 가장 원초적인 소통의 언어로 마음을 열게 해 공감하는 힘을 준다"며 "때로는 껄껄 한 번 웃음으로써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한다"고 말한다.

조선대를 미술학과를 졸업한 서 작가는 동대학원에서 미술학박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댄싱 위드 카르마' 전 등 10여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했다.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11월 1일까지 아산조방원미술관에서 열리는 서현호 초대전.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